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김'	작성일자	2018.01.03.
PGM명	화장품 1부 (참존 프리미엄 스템셀)	방송일시	2018.01.03. 12:30-13:30
PD명	이은정	쇼호스트명	김미진/손설형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김미진 쇼호스트의 “이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앞에 숫자 1이 빠진건가요?”라는 멘트
	개선 방안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이지만 멘트만 들으면 싼 제품을 사는 느낌이 들어 좋은 제품이 라고 생각이 안 든다. 앞으로는 가격보다 구성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길 바란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보습크림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바른 탓에 머리와 턱에 묻은 크림이 흡수도 안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개선 방안
	크림을 적당량만 바르면서 흡수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딱 한 번의 시연보다는 크림 바르는 모습을 여러 번 시연해준다면 신뢰가 갈 것 같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모델로 나오시는 분의 전후사진에서 전(before)사진에는 색칠한 느낌이 많이 들어 부자연스러웠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그냥 개수만 많이 주는 느낌을 받았다. 또 크림을 판매 하면서 스킨만 발라도 안티에이징(anti-aging)이 된다는 스킨 시연 장면이 과하게 많아 과장된 광고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크림에 대한 제품을 더 표현하면서 성분에 대한 설명이 함께 필요할 것 같다.
제품 측면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신	작성일자	2018.01.03.
PGM명	식탁의 고수 (최준용의 힘찬 낙지)	방송일시	2018.01.03. 16:30-17:30
PD명	김문수/최현정/서정민	쇼호스트명	임지숙/이승훈/유인석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연포탕’, ‘갈낙탕’, ‘낙지수제비’, ‘낙지첼판’
	개선 방안
	음식을 잘하는 노련한 주부만 상품을 구입하거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낙지요리 제목만 열거하기 보다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주면 좋겠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최준용씨 멘트 중 “음식점 가지 마시고 낙지 칼국수를 집에서 드세요.”라는 멘트
	개선 방안
	“물론 음식점에서 드시는 것도 맛있겠지만 이제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드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연포탕에 있는 낙지를 집게로 들어 클로즈업 했을 때 빨간 양념 음식보다 훨씬 싱싱하고 탱글탱글 보였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① 구매를 독촉하는 쇼호스트의 멘트와 전화벨 소리 ● 임지숙 : “낙지가 금값이에요.” ● 전 체 : (반복) “매진 된다고 합니다.” ● 최준용 : (가래 끓는 기침소리) ● 전 체 : (전화벨 소리) “매진 된다고 합니다.” ② 최준용님은 마이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듣기 거북했다.
제품 측면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구입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가성비 좋은 상품 같습니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양	작성일자	2018.01.05.
PGM명	악세서리/시계 1부 (게르마늄 팔찌)	방송일시	2018.01.05. 11:30-12:30
PD명	이유진	쇼호스트명	서아랑/주승연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11시 46분, 주승연 쇼호스트 멘트 중 “게르마늄이 몸에 좋다 안 좋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남자의 마음을.....”
	개선 방안
	게르마늄 효과에 대해 설명하되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설명이 정확할 것 같다. 그러나 주승연 쇼호스트의 멘트를 들었을 때는 혹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들린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전체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명품시계 대용품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효과보다 디자인에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다. ※ (참고) 11시 41분, 서아랑 쇼호스트의 멘트 중 “롤렉스 시계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대리만족도 된다.”
	개선 방안
	디자인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면 다른 팔찌와 디자인적인 비교 혹은 시계와 같이 매칭했을 때의 효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타 브랜드와 차별점에서 디자인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서 99.9%의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 축소된 것 같다. 중간 판넬을 통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제품 측면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김	작성일자	2018.01.07.
PGM명	언더웨어 2부 (라바쥬 2018 French Emotion 외 1건)	방송일시	2018.01.05. 21:45-22:50
PD명	김상아	쇼호스트명	서아랑/최은미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① 서아랑 쇼호스트 멘트 중 ‘가슴이 호물호물하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인격모독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② 최은미 쇼호스트의 손톱 색상이 청결하지 않았으며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았다.
	개선 방안
	처진 가슴을 ‘탄탄하게’ 혹은 ‘매끈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좋았을 것 같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로브가운’이 고가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을 최은미 쇼호스트는 5년 전 90만원이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혼란만 야기했다.
	개선 방안
	“고급스러운 가운을 내 침실에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멘트를 넣으면 좋겠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레이스를 보여줄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보여주면 좋겠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① 브라지어 뒷모습을 보여줄 때 특수 옷걸이로 걸어서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연출되었을 것 같다. ② 로브가운을 더 일찍 착용했다면 구매했을 것 같다.
제품 측면	프렌치네이비색 팬티 레이스가 조금 더 두꺼우면 착용할 때 편할 것 같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최	작성일자	2018.01.13.
PGM명	HIT THE STYLE (크리스한 사가폭스)	방송일시	2018.01.06. (22:30-01:00)
PD명	박상미/김윤아/정승환	쇼호스트명	임세영/이민웅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사가 폭스는 너무 유명해요.”(1:05), “사가 폭스라고 하면 가치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7:46),
	개선 방안
	사가 폭스가 유명하고 가치 있다고 하면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사가 폭스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명에서 사가 폭스를 왜 고급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실하게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기 쉬울 것 같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털이 예뻐 인터넷 쇼핑에서 비교해봤는데, 62츠 제품이 6~7만원 선이더라고요. 사가 폭스는 꿈도 못 꿉니다.”
	개선 방안
	쇼호스트가 인터넷 쇼핑과 비교하는 부분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멘트 자체가 모호하다. 인터넷 쇼핑과 비교해서 길이나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무엇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는 대상의 다른 점을 크게 부각시켜 조리있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투웨이(two-way)’를 설명할 때 쇼호스트가 꼬리를 떼고 짧은 모습을 직접 착용해보고 꼬리를 달고 착용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쇼호스트가 2개를 연달아 연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2개를 사서 연출하라는 느낌이 들어 하나로 트웨이를 연출해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좋을 것 같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① 방송을 보는 내내 쇼호스트가 2개를 사서 연장을 했다. 사용하는 모습과 2개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커서 1개는 길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계속 2개를 구매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소비를 유도하는 듯한 설명보다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내용이 더 부각되면 좋을 것 같다. ② 사가 퍼에 대한 확실한 내용 없이 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되었다. 또한 안쪽 자석 2개와 바깥쪽 자석 1개의 위치가 좋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블로그의 후기를 보고 알 수 있었다. 방송 도중에는 제품 정보를 확실하게 알지 못 했다. 퍼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털 빠짐 여부와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을 방송에서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유익할 것 같다.
제품 측면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김	작성일자	2018.01.14.
PGM명	(블랙캣츠 5종)	방송일시	2018.01.08. (오쇼핑플러스채널)
PD명		쇼호스트명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쇼호스트 “안감이 그냥 폴리에스테르 안감이 아니라 바람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주는 방풍안감이 사용되었는데 이 안감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안감을 강조했다.
	개선 방안
	① ‘이 안감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끝날게 아니고 이런 안감이 사용된 상품들이 시중에서 보통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이야기해준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다.
	② 방송 내내 방풍 안감에 대해 강조하지만 신축성 좋은 얇은 천 같아서 바람을 잘 막아줄 지 의문이 든다. 계속 완벽에 가깝게 막아준다고 해서 신뢰가 안 간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상품구성을 소개하는 방송 앞부분에서 쇼호스트 얼굴이 보이지 않고 상품이 보여지는 내내 목과 입 부분에서 얼굴이 잘려 나와 보기 안 좋았다.
	개선 방안
	상품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얼굴과 전체 화면 등을 섞어서 보여주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방송 내내 강조했던 방풍안감 천을 따로 떼서 펜으로 바람을 통과시켜 보는 등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만약 채널을 돌리다가 보았다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상품자체도 그리 눈에 쏙 들지 않았는데 쇼호스트들이 진행하는 방식도 빨리 상품설명하고 끝내고 싶은 건가 싶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는데 여유 없이 급해 보였고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납득을 시키거나 그게 아니라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자체가 무조건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사람들이 유난희씨가 방송하는 상품이라면 믿고 사는 것처럼요.
제품 측면	남성복 블랙색상 티셔츠의 목 부분 장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퍼가 있는데 옆쪽에 똑딱이는 예쁘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어 보입니다. 또 여성복의 경우, 겨울 아우터 색상이 어두운 게 많으니 여성 모델의 티셔츠는 밝은 색상으로 매치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이	작성일자	2018.01.09.
PGM명	패션잡화1부 (오로비앙코 소토마리노)	방송일시	2018.01.09. (01:00-02:00)
PD명	김문숙	쇼호스트명	김정선/손설형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서론에서 소개가 길다 보니 색상과 가격 그리고 3가지 종류의 가방 선택번호가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다.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운 이름, 복잡한 선택 번호에 정신 없는 설명이었다.
	개선 방안
	시간에 쫓겨 말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두 쇼호스트의 설명이 부족하여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손설형 쇼호스트는 거의 몇 마디도 하지 못한 채 끝난 느낌이 들었다.
	개선 방안
	쇼호스트들의 적절한 역할분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항상 빨리 지나가 버려 잘 볼 수조차 없었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호스트 둘 다 제품의 설명이 정돈 안 되어 있고 시간에 쫓겨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편했다.
제품 측면	① 현지 부띠끄와 동일상품이라는 설명이 나올 때, 상품이 실제로 진열된 화면이 더 보여지면 좋겠다. ② 프라다 원단과 같은 원단이라는 것에 더해 가벼움에 대한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정	작성일자	2018.01.13.
PGM명	Luxury Boutique	방송일시	2018.01.11. (12:30-13:30)
PD명	이유진/손화정	쇼호스트명	김시연/서아랑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13:04) 핸드백 크기를 설명하고자 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에 ‘기저귀가방’을 예를 들어 비유한 것과 (13:27) 파일백을 ‘사우나’갈 때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우나 갈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럭셔리 브랜드와 매칭이 되지 않았다.
	개선 방안
	‘기저귀가방’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 가방, ‘사우나’라는 대신 ‘스파’라고 바꿔 말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13:14) 쇼호스트가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다른 가방을 보여주기 위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품이 진열된 매대 뒤에서 핸드백을 뒤적이는 모습
	개선 방안
	쇼호스트 혼자 방송할 경우 시청자에게는 해외 브랜드 핸드백 명칭의 이해도를 높이고 쇼호스트에게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핸드백 앞 고유 명칭을 팻말에 표기하면 한 눈에 들어와 주문하기 용이할 것 같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13:09) “캐신이라는 사람이 행택을 전 핸드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쇼호스트의 설명이 브랜드 이해를 돕는다. 이런 상식은 구매를 넘어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있는 내용이라 방송을 오래 바라보게 된다. 이런 종류의 설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쇼호스트 혼자서 차분하게 제품을 설명하는 방송을 개인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다 타방송의 경우 번잡스럽고 격앙된 분위기에서 고객행위를 하듯 시끄럽게 전화벨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으면, 나도 모르게 채널을 돌려버린다. 제품에 사용한 정확한 소재를 모르던 차에 폴리염화비닐이라는 쇼호스트의 설명이 상당히 반가웠다. 홈쇼핑이지만 상식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
제품 측면	프라다와 코치는 상당한 가격차가 있고 브랜드 인지도 또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코치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젊은 층이 부담 없이 명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브랜드라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그 부분을 강조한다면 구매욕구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백	작성일자	2018.01.21.
PGM명	건강식품 3부 (썬킬오비엑스 레몬밤)	방송일시	2018.01.19. (22:40~00:00)
PD명	김배경	쇼호스트명	강연진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강연진 쇼호스트의 멘트 中 ① “언니 지금 몇 개 나갔는지 보세요. 말하면 안 돼~”, ② “운동 전혀 안 하니까 내장지방이 8.6% 늘어요. 내장 지방 6.9%가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빠싹거죠? 63빌딩을 8개월동안 64번 왔다갔다 했대요. 진짜 빠세죠? 일주일에 64번, 진짜 빠세죠?”
	개선 방안
	방송에서 평소 사용하는 호칭인 ‘언니’를 수 차례 언급하며 반말을 했다. 비속어에 해당하는 ‘빠세다’라는 표현을 수 차례 한 점에 불쾌감을 느꼈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안선영 게스트의 멘트 中 ① “운동을 하면서 내장지방을 혼내는 느낌이에요.”, ② “엄마들이 안 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아무도 안 알려줘서, 맨날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개선 방안

	① 내장지방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을 뿐이지 ‘내장지방을 혼내는 느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오인할 소지가 있다. ② 딸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	---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63빌딩을 8개월 동안 64번 왔다, 갔다 한 운동과 비교할 때, 내장지방이 줄어든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내장지방 20% 감소 확인, 대조군 10% 감소, 체지방 감소 등 여러 대상자에 대한 임상결과가 있음에도 40-50대 출산한 여성들의 내장지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표현이 아쉬웠다. 20-30대 성인 남성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에게 내장지방 및 체지방 감소에 효과 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
제품 측면	정말 빼기 힘든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는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새로웠지만, 효과에 대한 임상결과 사진이나 전후 사진이 부족하여 선뜻 구매의사는 없었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장	작성일자	2018.01.20.
PGM명	언더웨어2부 (베라왕 란제리)	방송일시	2018.01.18. (22:45~23:50)
PD명	김나미	쇼호스트명	이도현/조윤주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조윤주 쇼호스트는 '18년 한정판임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섹시하고 살아있는 듯한 레이스와 자수에 대한 설명 위주로 방송했다.
	개선 방안
	베라왕 언더웨어의 장점인 레이스의 고급스러움은 잘 알겠으나 언더웨어의 기능적 설명은 전혀 없었다. (폴 컵이라는 표현을 2번 정도 언급함) 쇼호스트는 상품을 많이 파는 역할도 있지만 화면으로 상품을 접하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이도현 쇼호스트 멘트 中 “베라왕이라는 이름만 있다면 천 조각 하나만 올려놓아도 된다. 환상을 심어주는 칼라인 블랙을 보면 자지러진다. 그만큼 소장가치가 있다.”
	개선 방안
	요즘 언더웨어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입는 추세이지만 다른 패션상품과 달리 언더웨어는 몸에 직접 닿기에 안감 및 와이어 유무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언급이 없었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방송 35분 후 10분 정도 똑 같은 설명의 화면을 반복으로 보여줬다. 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입장에서 지루했다. 매진대비 방송준비를 안 한 느낌도 들었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쇼호스트가 정말 해당 제품을 착용해 본 후 자신 있게 방송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상품의 기본 설명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몇 천 세트 매진을 기대하는 상품에 걸맞게 기본적인 설명이 필수적이다.
제품 측면	여자라면 누구나 예쁜 언더웨어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것을 충족해주는 제품이라 생각해 호감이 갔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베라왕 언더웨어를 구매하지 않은 입장에서 착용감에 의구심이 들었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김	작성일자	2018.01.20.
PGM명	유아동도서 1부 (예림당 WHY 학습만화)	방송일시	2018.01.19. (09:25-10:25)
PD명	김문숙	쇼호스트명	윤소영/김익근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김익근 쇼호스트 멘트 中 “역사책을 설명하면서 미리 공부하면 나중에 수학, 과학만 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모든 아이들이 공부만 해야 하는 것처럼 들려서 거북했다.
	개선 방안
	“역사를 많이 알면 사회과목이나 문학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①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설명이 없었다, ② 구성이 예전과 달라져 좋다고 하면서 6살에게 쥐도 오래 볼 수 있다고 하여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③ 총 권수가 많아서 과연 책장에 들어갈지 걱정된다.
	개선 방안
	① 워크북 내부 내용과 사용법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② 전 권을 책장에 넣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초등학생 아이가 즐겁게 책을 보는 모습, 책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① 책의 권수가 너무 많으면 잘 안 볼까 봐 걱정되어 구매하기 어려웠다. 책 내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② 김익근 쇼호스트가 흥분하면서 마지막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마트에서 떨이 세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품 측면	WHY 책은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 유용함이 이미 알려져 있다. 책 내용과 더불어 실제로 책을 읽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강	작성일자	2018.01.24.
PGM명	럭셔리샵 (에트로)	방송일시	2018.01.24. (14:45-15:45)
PD명	김민소	쇼호스트명	임세영/이나래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① 이나래 쇼호스트가 에트로 아르니카라인을 설명할 영문이름을 버벅거리어서 보기 민망했다.
	② ‘셔링백’이 솔더백처럼 어깨에 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꾸 흘러내리는 탓에 겨드랑이에 끼어서 잡고 있는 모습이 많이 억지스러워 보였다.
	개선 방안
	① 이름을 숙지하고 방송하면 좋겠다.
	② 어깨에 걸리지 않는 백은 들고 다니기에 좋은 디자인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듯하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임세영 쇼호스트가 스퀘어백과 셔링백에 대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다고만 표현했다.
	개선 방안
	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줬음 좋겠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보스턴백을 확대해서 보여줬는데, 가방이 심하게 구겨져 상품의 질이 떨어져 보였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무게와 끈 길이도 알려줬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 측면	보스턴 백이 너무 구겨줘서 명품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1. 방송개요

작성자	서	작성일자	2018.01.29.
PGM명	언더웨어 1부 (FILA 언더웨어)	방송일시	2018.01.27. (13:50-14:50)
PD명	이유진	쇼호스트명	임세영/김정선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임세영 쇼호스트 멘트 중 “폴사이드 컨터롤 패널이 들어가서 완벽에 가깝게 잡아준다.”
	개선 방안
	와이드 프론트 패널과 사이드 패널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임세영 쇼호스트 멘트 중 “100일만에 첫 선을 보이는...”
	개선 방안
	상품명이 휠라(FILA)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CJ오쇼핑 제품인 줄 알았다. CJ오쇼핑에서 이렇게 편한 언더웨어는 없었나 싶었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었다. 요즘 보험 상품처럼 빠르게 읽어 주면 좋을 것 같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임세영 쇼호스트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을 끝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제품 측면	상품평 작성 시 주는 팬티 3종은 너무 젊은 취향이었다.

<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

1. 방송 개요

작성자	강	작성일자	2018.01.29.
PGM명	화장품 2부 (리리코스, 아이오페)	방송일시	2018.01.29. (19:35~20:45)
PD명	이지혜	쇼호스트명	한창서/김규린

2. 방송 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① 추운 날씨에 대해 “미친거 아니냐”라고 표현한 점, 애플보다 스킨/로션이 더 좋다는 것을 ‘제꼴다’라고 표현한 점은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스킨/로션이 어떻게 애플보다 좋은 건지 근거가 필요하다.)
	② 뺨의 탄력, 모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같아 신뢰가 가지 않았다.
	개선 방안
	일반 스킨과 달리 흐르지 않고 애플처럼 쫄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모니터링 내용	
	불만 사항
	김규린 게스트는 설 전에 보여주는 마지막 알찬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을 빨리 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한창서 쇼호스트랑 말이 겹쳐 듣기 불편했다.
	개선 방안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며 천천히 말하면 좋겠다.

3. 방송 퀄리티(Quality) 개선사항

방송 퀄리티 개선사항	
상품확대경	상품평 작성시 증정하는 골든 알게 크림을 자세히 보여주기 보다 2세트나 주는 흑진주 구성을 자세히 보여주면 좋겠다.

4. 방송 후 느낀점

내 용	
방송 측면	처음엔 마치 스킨 로션 3세트를 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자세히 보니 2세트에 상품평을 쓰면 작은 용량을 두 개 더 주는 거였다. 그 점을 정확히 말하는 게 고객의 입장 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제품 측면	애플 만큼 좋은 제품임을 강조하는 게 신뢰가 같듯하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애플 코리아' (2023. 10. 10. 기준)